

第一回 建築大賞 作品 審査總評

宋 基 德

優秀한 建築物이 計劃되고 完工될 때 우리 建築界는 發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六. 二五 動亂以後 우리 國土의 황폐로 因하여 빛을 못보던 우리 建築界가 국토再建이란 志望목표로 因하여 發展되고 불모의 建築界를 우리 建築人들은 어려운 逆境 속에서도 建築界 各 分野에서 發展을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發展과 앞날의 前進를 위하여 또한 社會 모든 分野에 처하여 우리 建築人의 功績과 權益을 더욱더 周知시키기 爲하여 建築大祭典을 마련했으며 建築人의 優秀성을 보다 빛내기 위하여 優秀한 作品을 施賞코져 建築大賞이란 制度를 마련하고 兪없는 效果를 거두기 위하여 海外建築賞을 첨가하여 海外에도 이 賞을 널리 周知시켜 永遠히 우리 建築界의 가장 큰 大賞으로서 發展시키코져 했다.

이번 建築大賞 施賞에 앞서 審査대상 作品을 두루 짧은 時間內에 찾아서 審査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어 會員들에게 作品을 추천 또는 直接 提出토록 권유했던 것이다. 그러나 會員들의 謙遜과 주저심 등으로 特出한 作品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出品치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 위에 말한 여러가지 문제가 이번 審査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가 됐던 것이며 이러한 關係로 不得히 提出된 作品 中에서만 審査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던 것이다. 作品 提出에 주저와 怯弱심은 우리 建築의 發展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以後機會의 大賞時는 何人을 막론하고 一人 一作品以上 提出하여 大賞의 권위와 發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作品 심사에 있어서는 出品作品의 수가 적어서 審査委員들의 審査課程에 많은 실망을 주었다.

먼저 大賞 各 分野에 있어 作品을 간추리고 分野別 審査를 했다. 審査方法은 入選內에 해당되는 作品을 결정하고 圈內의 作品 中에서 審査要員間에 討論을 거친 後 最終은 投票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各 分野別 大賞과 獎勵賞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보았던 것이다.

大賞部分 주거대상 : 안영배 산업대상 : 김관풍 기념대상 : 장기인 공공대상 : 이 수
문화대상 : 김인호

장려상부분 주거장려상 : 이덕우 산업장려상 : 허선행 기념장려상 : 김영찬

상기대상 작품中 특히 觀賞할만한 作品으로서는 文化대상 부분인 金인호 회원의 작품이 눈에 띄어 特別 優秀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번에 느꼈던 특별한 생각은 다음 기회는 좀더 좋은 優秀작품을 大賞으로서 擇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지를 모아 作品의 선택 및 수집을 광범위하게 하고 심사 방법 등도 많은 시간을 두고 研究擇定해야 할 것이다. 또한 地方會員 및 無名會員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이번 대상을 위하여 審査에 참여해 주신 審査委員先輩任들의 노고에 感謝를 드리며 以後 이 大賞을 위하여 많은 指導와 協助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